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전문가 및 사무장 선발 완료

지난 5월 29일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전문가' 및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절차가 완료되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총괄 운영하게 될 이번 지원 사업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전문가 모집에는 총 13명의 컨설팅 전문가와 컨설팅 대상 마을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큰무리마을), 경기(선감마을, 궁평마을), 전북(장자도마을, 만돌마을), 전남(선소마을, 와온마을), 경남(동화마을, 문항마을, 지족마을), 경북(경정2리 마을), 강원(장호어촌계, 대진어촌계) 등의 순이었다.

한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는 총 10개 마을의 사무장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중구 큰무리마을), 강원(삼척 장호마을, 양양 남애마을), 전북(군산 장자도마을), 전남(신안 수락마을, 여수 외동마을), 경북(영덕 대진1리마을, 울진 거일1리마을), 경남(남해 방천마을, 고성 동화마을) 등 이었다.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전문가 선정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어촌체험마을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

용으로 마을단위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상남도 인공어초 폐기물 수거 사업 완료 인공어초 기능 회복 도모 및 어업 생산기반 조성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50일간, 경상남도 통영 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 주변 폐기물(폐그물 등) 15.83톤을 수거하였다.

이번 사업(「2006년 경상남도 어초어장 관리사업 2차 폐기물수거 처리용역」)은

인공어초 중 인평 필도~한산 매죽에 이르는 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인공어초 18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수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경험 많은 잠수부를 투입, 폐그물과 폐어구를 확인하고 해상크레인을 동원, 인양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당초 폐그물, 폐어구 등 13.97톤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나 계획대비 113%, 1.86톤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 통영 일대 해역의 인공어초 기능 회복을 도모,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환경개선 및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조사 최종보고

6월 8일 해양수산부 10층 회의실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2006년 10월 17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8개월 동안 수행한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조사 용역(동, 서해안권역)」에 대한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업의 과업 대상권역은 강원 삼척시 원덕권역, 충남 태안군 태안2권역, 경북 울진군 죽변권역, 전북 고창군 남부권역, 전남 완도군 금일권역, 신안군 장산권역 등 총 6개 권역 11개 읍면 52개 어촌계가 포함되었다.



이번 업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 설계획 뿐만 아니라 관광기반시설을 반

영한 어업 외 소득원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었으며, 권역별 개발계획, 투자계획(부문별·어촌계별), 향후 권역발전 전망 등 각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전국 225개 권역에 대한 종합 개발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인 160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로 65개 권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